

“야간 시급은 1.5배”... 심야영업 포기 확산

임금·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의점·외식업계 영업 단축 업주들 일부식당 배달료 1천원 추가...물가 인상 이어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히던 편의점을 비롯해 음식점들도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가격인상도 모자라 ‘배달료 추가’를 내걸고 나서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영업 포기 속출 = ‘24시간 영업’으로 유흥가와 주택가 골목까지 영역을 확대하던 편의점 업계는 올해 들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8% 인상된데다, 야간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할증이 붙어 시급을 1.5배 더 지급해야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점주들은 주말과 야간시간에 직접 매장을 지키다가 이전 24시간 영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하는 점주 A씨는 “인건비 줄여보겠다고 가족까지 동원해 야간근무를 했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 수 없다”며 “이번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편의점 업계에서는 야간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조만간 전체의 20%를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편의점 이마트24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가맹계약을 맺은 점포 중 ‘24시간 운영’을 선택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신규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점 비율은 지난해 10월 19.8%에서 11월 12.3%, 12월 9.6%로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11.7%, 2월 8.85%로 점차 야간영업을 포기하는 창업자가 늘고 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예고돼

있어 편의점 신규창업자들이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도 야간영업 포기 ... 배달수수료까지 = 야간영업 포기 ‘바람’은 편의점을 넘어 외식업계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은 최근 전남대후문점 등을 비롯한 일부 매장의 24시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도 지난해 말부터 전국 일부 매장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국밥프랜차이즈 역시 야간영업을 중단하는 등 외식업계도 가격인상을 넘어 야간영업 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심야시간 적자를 보는 날이 많아 “밤 장사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광주 일부지역 음식점들이 기존에 받지 않던 배달료를 1000원

씩 받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 일대 중국음식점과 야식전문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배달주문 앱(APP)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음식값 외에 배달료 1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중국음식점 관계자는 “원재료 값과 임대료가 올라 음식 가격을 올렸지만 직원들 인건비 맞춰주기도 힘들다”며 “배달주문 앱 수수료가 비싼 탓에 어쩔 수 없이 배달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배달앱의 배달주문 중개수수료는 12.5%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온라인결제·PG수수료)도 3.9%나 추가된다. 짜장면 두 그릇 1만원에 수수료만 1646원(16.46%)이 붙는 셈이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야간영업 포기로 일자리는 줄고 가격인상으로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온라인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7.08 (+20.32)	↑ 금리 (국고채 3년) 2.24% (+0.02)
↑ 코스닥 853.69 (+24.01)	↓ 환율 (USD) 1081.10원 (-1.10)



광주은행 송중욱(가운데) 은행장이 제2기 특특 자문단 발대식 이후 자문단으로 선정된 고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고객패널 ‘특특 자문단’ 2기 발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6일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고객중심 경영실현을 위한 고객패널 ‘특특(Talk-Talk)자문단’ 제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특특 자문단은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해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채널이다. 지난해 1기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영업환경 개선과 비대면 채널 프로세스 등 20여 건 이상의 의견을 경영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에 2기 자문단으로 선정된 6명의 고객들은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9개월 동안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과정,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은행제도 도입 등 소비자의 시각을 광주은행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광주은행도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편의 증진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특특 자문단을 통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에 고객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진정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 함께 동행해 신뢰받는 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전남 농·축협 6곳 업적평가 1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전남지역 6개 농·축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 전남본부 관내 전국 1위 농·축협은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 나주 금천농협(조합장 김선중), 강진 도암농협(조합장 문경식), 해남 계곡농협(조합장 임정기), 여수 여천농협(조합장 박상근),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 등이 다.

이들 지역농협에는 각각 시상금 300만원과 업무용 차량 1대(2000만원 상당) 직

원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발표한 전국단위 종합업적평가는 임지유형 및 사업량 등을 고려해 20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이후 경제·신용·교육 지원 부문 등 총 4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장과 조합원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경영내실화 등 더 많은 농·축협이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청청’으로 봄을 입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게스(guess) 매장에서 고객이 나팔 청바지와 청자켓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90년대 복고패션이 유행을 타고 있어 지역 유통업계는 상하의를 모두 데님으로 연출하는 ‘청청패션’ 상품으로 매장을 연출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1사 1교 금융교육’ 참여 학교·기업 모집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할 학교와 금융회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현장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금융사례와 체험교육을 지원,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1사1교 금융교육’ 결연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 초·중·고교와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이 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금융감독원 금융

교육센터 홈페이지 ‘1사1교 결연신청’(www.fss.or.kr/edu)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감독원이 결연 가능학교와 금융회사를 연결한 뒤 자매결연을 체결, 지속적인 무료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는 “금융교육은 단순 금융지식 습득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실용적인 금융 사례와 체험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태도를 길러줘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금호타이어 운명따라 주주도 ‘희비’

광주·전남 소재 실질 주주수 한전·금호산업·금호타이어 순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에 위치한 기업들 중 실질 주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금호타이어가 파국으로 갈 경우 주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광주·전남지역 거주 실질주주(중복주주 제외)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8% (4000명) 증가했다. 국내 전체 실질주주 506만명의 4.9%다. 광주·전남지역 실질주주 1인당 평균 소유주식 수는 5803주로 전년(5723주)보다 1.4% 증가했다.

실질주주 수가 2000명 이상인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 수는 30개사로 전년 28개보다 2개 사가 증가했다.

지역 소재 상장법인의 실질주주 수는 한국전력공사가 20만6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호산업 4만1468명, 금호타이어 2만7495명, 파루 2만1344명(코스닥) 순이다.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주주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코넥스시장 투자 개인주주 수 및 주식 수가 전년대비 각각 385.17%, 67.37% 증가했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투자 주식도 각각 3.75%, 15.32% 증가했다.

개인주주 연령별 분포 현황을 보면 50대가 7만2854명(29.24%), 4억6803주(34.75%)로 가장 많고 40대, 60대, 30대, 70대, 20대 이상 순이다. 20세 미만은 3808명(1.53%)이 393만주(0.2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질주주는 광주시 북구가 3만9357명(15.75%)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 서구(14.61%), 광산구(12.85%), 여수시(9.42%), 순천시(8.93%) 순으로 조사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하면서도 탄성GOOD! 흡발습GOOD! |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함유,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일본 도레이社 LYCRA | 발단면역극화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